

# 고용창출 기업 기(氣) 팍팍 살린다

### 김승수 전주시장,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방문 기업경영 애로사항 청취·근로자 격려

전주시가 기업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기업성장을 돕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김 시장은 27일, 기업 기(氣) 살리기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 세플러코리아 전주공장을 방문해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기업 기 살리기’는 전주를 사람, 생태, 문화와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민선 6기 후반기 7대 핵심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추석연휴를 앞두고 탄핵을 앞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구내식당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소통에 힘썼다.

이날 김 시장이 방문한 세플러코리아 전주공장은 올해 지난해보다 16% 증원한 52명을 추가 고용하는 등 매

년 꾸준한 근로자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평균 근속년수가 20여년에 달하는 등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해 고용창출의 모범으로 손꼽히는 기업이다.

김 시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전주 시민에 대한 고용창출에 기여가 큰 세플러코리아의 경영진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챙겨주며 전주 일자리창출 선두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기업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힘써왔다.

김 시장도 지난 1월 시무식을 생략하고 기업 기 살리기 현장방문과 함께 현장시청인 기업지원사무소에서 기 살리기 및 지원방안 회의를 갖는 것으로 새해 첫 업무를 대신하는 등 기업 기 살리기에 힘써왔다.

그 결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3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기업현장의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예산



김승수 전주시장(가운데)이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 기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세플러코리아를 전주공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을 지난해보다 10배 늘렸다. 또, 기업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중앙부처에 방문 건의하는 등 소통 정책을 펼쳐왔다.

뿐만 아니라, 시는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수렴한 기업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업의 해외수출을 가로막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노후시설을 개선토록 해줌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도 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열쇠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에 있다. 지역 기업을 키우고, 기업의 기를 살려 자칫만 세계에서도 통하는 독일형 강소기업을 키워내기 위해서라면 불법만 아니면 뭐든지 지원하고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기아차 코리아 세일 페스타 참가

### 선착순 5000대 한정 최대 12%까지 할인 혜택 제공

기아차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소핑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 이하 KSF)’에 참가한다.

기아자동차(주)는 모닝, 레이, K3, K5, K7 5개 차종에 대해 선착순 총 5천대 한정 최대 12%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KSF 연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KSF는 내수축진과 외국 관광객 유치, 한류확산 등을 위해 9월 2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소핑관광축제로, 참가기업이 지난해 341개에서 올해 400여개로 늘어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총 5개 승용 주력 차종을 대상으로 5%에서 최대 12%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할인 행사는 28일 5천대 선착순 계약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차종 별 한정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속된다. (※ 대상차종 소진 시 자동 종료, 기본 조건/공통타겟조건/사은품 중복 적용 불가, 택시 출고 시 적용예

외) 각 차종 별 할인은 정상가 대비 ▲모닝 9% ▲레이 5% ▲K3 12% ▲K5 7% ▲K7 5% 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 경차 모닝은 97만원에서 최대 126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레이는 64만원에서 최대 77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아차의 대표 세단 모델인 K시리즈의 경우, K3는 185만원에서 253만원까지 할인 혜택이, K5는 159만원에서 205만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K7은 155만원에서 최대 199만원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실례로 주력 트림인 K7 2.4GDI 가솔린 리미티드 모델의 경우 정상가 3,290만원 대비 165만원 저렴한 3,125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K5 2.0가솔린 프레스타지 모델은 정상가 2,515만원보다 176만원 저렴한 2,339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세부 할인 금액 및 대상 차종 유무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기아차 전국 영업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원주=이종복 기자

## 하림, 4차 산업형 스마트 팩토리 시설 구축 ‘시동’

### 익산공장, 소비자 니즈 맞춰 동물복지·소단량 설비 구축

글로벌 닭고기 전문기업인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업계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집합체인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실현과 동물복지형 고품질 제품생산 시설을 구축한다.

하림은 급변하는 소비시장에 대응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닭고기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하림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도계 가공공장 시설 증설 및 부대시설 투자를 위해 1,790억원 투자에 대한 1,035억원의 증자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설투자는 익산시 망

성면 현 공장부지 13만5,421㎡(연건평 1만9,720평)에 기계장비 1,262억원, 건설투자 502억원, 근로환경 개선 16억원 등의 규모이다.

지난 2009년 신축된 하림 익산공장은 그동안 시설 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통닭이 아닌 부분육과 양념육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물복지 인증을 실현하는 지능형 생산 공장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최근 소비자 트렌드가 1인 가구 및 혼밥, 혼술족 증가로 다품종 소량소비로 패턴 변화가 이뤄짐에 따라 시설변경이 요구돼 왔다.

새로 구축될 설비는 동물복지 및 방염효과를 높이기 위해 CO2 가스 살신과 온도제어 시스템, 세척 자동화를 위한 운송모듈 자동공급 장치, 공장 오염 제로화를 위한 최의의 공기 청정 시스템이 갖춰진다.

또한 신선한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53~57℃ 중,저온 탕적으로 콜라겐을 유지하고, 도계라인에 검사대를 설치해 수의사 자격을 가진 검사원들이 도계된 닭고기를 철저히 검사하는 프 로세스를 구축하게 된다.

도계 라인별 냉각시간 자동조절로 최적화된 도체온도를 조정해 닭고기 고유의 풍미를 유지하고, 유통과정에 서 신선도를 유지해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특히 1인가구의 소비자 맞춤형 제품 생산으로 오는 2020년까지 부분육과 양념육의 구성 비율을 현재 2%에서 35%까지 확대해 매출신장과 수익구조를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지난 1월 착공해 2018년말까지 완공될 익산공장은 향후 5년간 신규 고용인원 100여명과 이에 따른 직접 고용비 연간 1,050억원, 가점 고용비(외주 및 협력업체) 연간 1,000억원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게 된다.

또한 현재 650여 계열봉기는 향후 2020년 800여 농가로 늘어날 예정이며, 농가 평균 사육소득도 2억원 이상 고수익 시대를 열게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전통시장 상품권 전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27일 회사 내 홍보관에서 전북 사랑의열매에 전통시장 상품권 4800만원 어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아 도내 소외된 이웃들과 각급 사회 복지시설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돕고, 친체의 눈에 빠져 있는 전북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일조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특히 상품권 4800만원 중 1000만원은 지역 사회와의 동반성장 및 발전을 위해 회사가 위치한 완주군 상품권을 포함시켜 그 의미를 한층 더했다. 이번에 전달한 상품권은 지역 내 장

애인, 노인, 저소득 가정 등 250가구의 소외 이웃들과 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 4곳, 추천기관 14곳에 전달돼 이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쓰여질 예정이다.

앞서 전주공장은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 상여금 중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대신 받는 사내 캠페인을 전개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캠페인 결과 약 1800여 명의 직원들이 4억1500만원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받았다고 신청했으며, 사내협력업체 직원들도 적극 동참해 총 5억8500만원 상당이 지급됐다. /김민근 기자

## 한은 전북, 소규모 학교 경제교육·현장학습 실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도내 소규모 학교의 학생과 교사를 초청해 경제교육 및 현장학습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완주 비봉초등학교 2·4학년 학생과 완주 화산초등

학교 5·6학년 학생이 참여했다. 전북본부는 참여 학생 및 교사들에게 한국은행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화폐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전주한지박물관을 찾아 관찰

한 뒤 초코파이를 만들어보는 전통문화체험도 실시했다.

전북본부는 도내 학생들의 건전한 경제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향후에도 초청 현장학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관삼대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